

월스트리트파인더 Ep.208

D-30, 미국 중간선거: 결국 문제는 생활비

- 2026년 미국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생활비 부담(Affordability)'
- 권력구도 변화에도 정책 전환은 제한적. 이후 에너지·금리·이익 확인 필요
- (Weekly Preview) 미국 국채 입찰,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Executive Summary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로 **Affordability** (이하 '생활비 부담'), 즉 **가게가 현재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가 부상하고 있다. 미국 경제와 기업이익은 아직 비교적 견조하지만 2월 말 이후 휘발유·디젤 가격과 모기지 금리가 상승했고, 연준도 금리를 다시 인상했다. 그 사이 소비자심리는 약화됐다. 경제는 버티고 있지만 가게가 체감하는 비용 부담은 오히려 높아진 셈이다.

이러한 환경은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9월 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RealClearPolitics 평균 기준 38.8%, 부정평가는 59.7%로 순지지율이 -20.9%까지 낮아졌다. 최근 전국 정당 지지율에서도 민주당 우위가 확대되고 있다. 다만 하원에서는 민주당에 유리한 흐름이 비교적 뚜렷한 반면, 상원은 다수의 경합주가 남아 있어 최종 권력구도를 단정하기 어렵다. 현재 여건에서는 민주당의 하원 탈환과 공화당의 상원 방어가 주요 시나리오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지만, 선거일까지 여론과 투표율 변화가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간선거 이후에도 정책 방향이 전면적으로 바뀔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하원 다수당이 달라지는 분점의회가 형성될 경우 대규모 신규 입법은 제약될 수 있지만, 관세·대외정책·에너지·규제 등은 행정부 권한을 통해 상당 부분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선거 이후에는 단순히 정책 불확실성이 줄어드는지보다 생활비 부담과 관련된 정책이 어느 분야에서 강화되거나 수정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남은 한 달은 에너지 가격과 소비자심리의 방향이 최근의 선거환경까지 바꿀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구간이 될 수 있다.

표 1. 2월 말 이후 달라진 미국 생활비 부담

구분	단위	26.2월 말	현재(9월 말)	변화	가게 영향
휘발유	(USD/갤런)	2.98	4.41	48%	이동·소비 비용 부담
디젤	(USD/갤런)	3.76	6.39	70%	운송·상품 가격 부담
30년 모기지 금리	(%)	5.98	7.28	+130bp	주택 구매력 약화
연방기금금리	(%)	3.50~3.75	3.75~4.00	+25bp	차입비용 상승
미 10년 국채금리	(%)	3.94	5.28	+134bp	금융비용·할인을 부담
미시간 소비자심리	(Index)	56.6	48.1	-8.5pt	체감경기 약화
1년 기대인플레이션	(%)	3.4	4.6	+120bp	생활비 부담 우려

자료: AAA, Freddie Mac, Fed, Univ. of Michiga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ssue Dive

체감경기의 역전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경제에서는 다소 상반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활동과 기업투자는 아직 비교적 견조하지만 가계의 체감경기는 악화되고 있다. 9월 FOMC에서도 연준은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동시에 인플레이션 부담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다.

이번 선거를 앞둔 미국의 문제를 경기침체로 단순화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경제가 버티는 가운데 생활비와 차입비용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월 말과 비교하면 휘발유와 디젤 가격이 상승했고,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다시 7%를 넘어섰다. 정책금리와 장기금리도 높아졌다. 반면 소비자심리는 악화됐다. 이러한 변화는 유권자가 바라보는 경제의 기준이 GDP나 고용과 같은 거시지표에서 실질 구매력으로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생활비 부담은 2026년 중간선거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로이터/입소스 여론 조사에서 등록 유권자의 47%가 생활비를 투표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으며, 1월의 39%보다 높아졌다고 지적한다. 최근 보고서에서도 높은 식품·주거·에너지 비용과 악화된 소비심리를 선거환경의 주요 변수로 평가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경제가 성장하는가”와 “가계가 이를 체감하는가”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가격 수준

생활비 부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율과 가격 수준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물가상승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가격이 이전보다 천천히 오르고 있다는 의미이지, 이미 오른 가격이 다시 내려간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가계 입장에서 소비자가물가지수(CPI) 상승률 자체보다 식품·주거·에너지·보험 등 **필수 지출의 절대 가격과 이를 조달하기 위한 금융비용**이 더 중요할 수 있다.

현재 부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에너지 비용이다.** 휘발유 가격 상승은 가계의 직접적인 소비여력을 낮추고, 디젤 가격 상승은 운송·물류비를 통해 상품가격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다. **둘째, 주거 비용이다.** 높아진 주택가격에 모기지 금리 상승이 더해지고 있다. 주택가격이 크게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30년 모기지 금리가 7%를 웃돌 경우 신규 주택 구매자의 월 상환 부담은 높아질 수 있다. **셋째, 일반 생활비다.** 식품·의료·보험 등 필수지출에 관세와 높은 금융비용이 겹칠 경우 명목소득 증가가 실제 구매력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과거 중간선거 사례를 보더라도 예상치를 웃도는 인플레이션과 휘발유 가격 상승은 언제나 집권당의 표심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 다만 과거의 역사적 평균을 이번 선거 결과에 기계적으로 대입하기는 어렵다. 결국 선거 당일까지 에너지 및 주거 비용의 추이가 유권자의 소비자심리와 기대인플레이션에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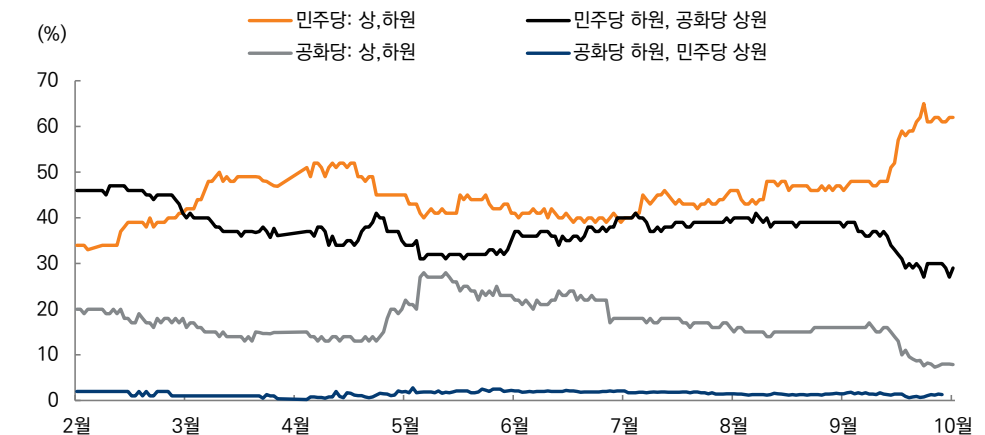
의회 권력구도 변화 가능성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5명이 선출된다. 하원의원은 임기가 2년이어서 모든 의석이 선거 대상이며, 상원은 임기 6년을 세 그룹으로 나눠 약 3분의 1씩 교체한다.

현재 양당의 의석 차이가 근소한 만큼, 특히 **하원에서는 소수 의석의 향방만으로도 다수당이 뒤바뀔 수 있다**. 그만큼 전국적인 정당 선호도 변화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최근 흐름을 보면 전국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의 우위가 한층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지난 9월 25일 기준, RealClearPolitics 정당 선호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공화당을 8.7%p 앞섰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순지지율은 -20.9%까지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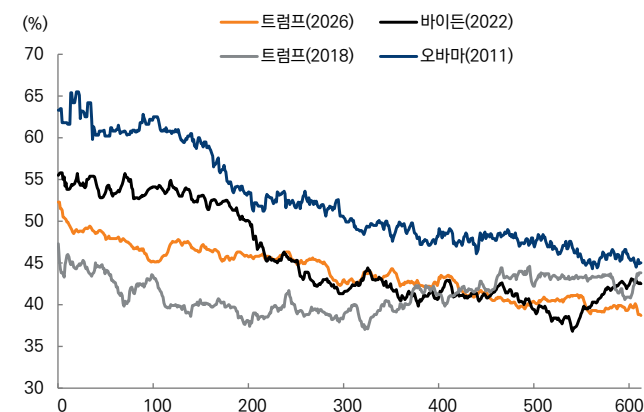
하원에서는 민주당에 유리한 흐름이 비교적 뚜렷하지만, **상원은 다수의 경합주가 남아 있어 최종 다수당을 단정하기 어렵다**. 현재 여건에서는 민주당의 하원 탈환과 공화당의 상원 방어, 즉 상·하원 다수당이 달라지는 분점의회(The Divided Congress)가 주요 시나리오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다만 선거일까지 경합주 판세와 투표율 변화가 남아 있는 만큼 확정적인 전망으로 보기는 어렵다. 중요한 점은 **분점의회가 형성되더라도 대규모 신규 입법의 문턱이 높아질 뿐, 행정부 주도의 정책까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림 1. 민주당 하원 우위 확대, 상원은 경합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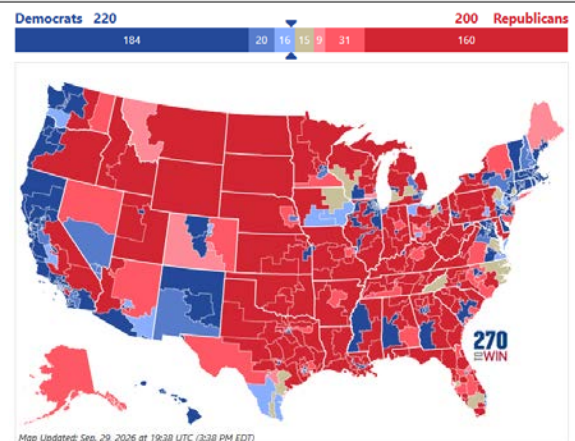
자료: Kalshi,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트럼프 지지율, 과거 중간선거보다 낮은 수준



자료: RealClearPolitics,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2026년 미국 하원 선거구별 판세



자료: 270toWin / 주: 10월 현재, 미 하원은 공화당 219석, 민주당 214석, 결원 2석

선거 이후에도 남는 정책

분점의회가 형성될 경우 대규모 재정정책이나 신규 법률의 통과는 이전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정치적 교착이 급격한 정책 변화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에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에도 같은 효과가 반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세·대외정책·에너지·규제 등은 의회의 신규 입법 없이도 행정부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중간선거 이후에도 해당 분야에서는 의회 구성보다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금융시장에 더 중요한 변수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생활비 부담 완화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 취임 이후 주택 공급, 의료비, 에너지·식품비 부담 완화를 제시했고, 에너지 공급·전력망·데이터센터·주택 등을 대상으로 관련 행정조치를 이어왔다. 따라서 중간선거 이후에는 단순히 정책 불확실성이 줄어드는지보다 생활비 관련 정책이 어느 분야에서 강화되거나 수정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2. 생활비 부담과 관련된 트럼프 행정부 주요 정책

분야	가계 부담	주요 정책·행정조치	정책 방향	선거 이후 확인
에너지	휘발유·전기료	2025년 1월 「Unleashing American Energy」 행정명령	연방 토지·수역 개발 및 인허가 간소화 등을 통한 에너지 공급 확대	공급 확대가 실제 연료·전력가격 안정 여부
전력·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부족·AI 투자에 따른 전기료 상승	전력망 신뢰성 강화 조치, 2026년 3월 「전기소비자 보호 서약(Ratepayer Protection Pledge)」	발전·송전 인프라 확충, 데이터센터 관련 비용의 가계 전가 억제	기술기업의 자체 전력조달·전력망 투자 확대 여부
주택	높은 주택가격·모기지 부담	2026년 3월 주택건설 규제 완화 행정명령	인허가·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공급 확대가 주택가격 부담 완화 여부
헬스케어	의료·보험 비용	2025년 1월 생활비 부담 완화 대통령 각서	행정비용·규제 축소 등을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보험료·약가·의료비 관련 후속정책 여부

자료: 백악관,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D-30, 선거를 가를 변수

중간선거까지 남은 한 달 동안에는 단순한 여론조사보다 생활비 부담과 관련된 경제지표가 실제로 개선되는지가 중요할 수 있다. 최근 민주당에 우호적인 선거환경에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뿐 아니라 악화된 소비자심리와 높은 에너지 가격이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에너지 가격과 소비자심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휘발유와 디젤 가격이 고점을 낮추기 시작한다면 가계가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생활비 개선 신호가 될 수 있다. 여기에 금리 안정까지 더해져 소비자심리가 회복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과 최근의 선거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날 여지가 있다. 반대로 높은 에너지 가격과 생활비 부담이 지속될 경우 집권당에 불리한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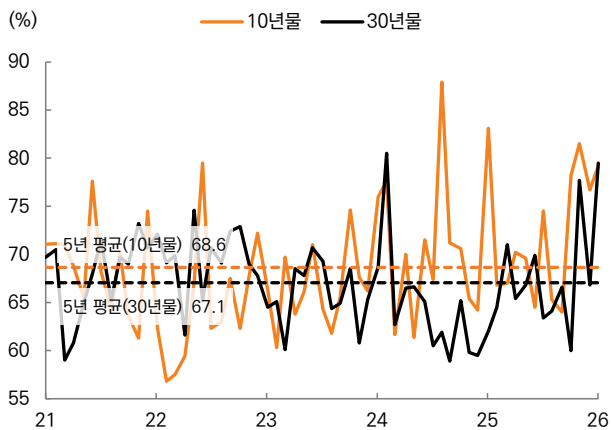
결국 남은 한 달의 핵심은 생활비 부담이 완화되면서 최근 민주당에 우호적인 선거환경까지 바뀌는지다. 금융시장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향후 정책 기대를 통해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어느 정당이 앞서고 있는지를 보는 것보다, 미국인의 생활비 부담이 실제로 개선되며 선거의 방향까지 바꾸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Weekly Preview

미국 국채 입찰,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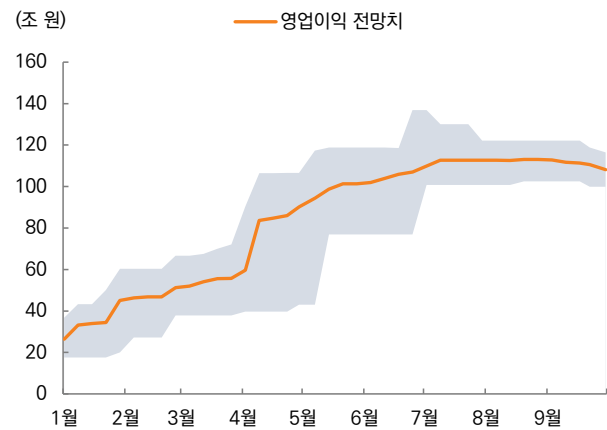
- ◆ **(주중) 미국 국채 입찰:** 미 재무부는 6~8일 3년물 580억 달러, 10년물 390억 달러, 30년물 220억 달러 등 총 1,190억 달러 규모의 중장기 국채 입찰을 진행한다. 미 10년물 금리가 유가 상승과 경기 호조로 5.34%까지 올라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응찰률과 간접낙찰 비중, 낙찰금리와 WI 금리 간 차이(tail)가 최근 금리 상승에도 실수요가 유입되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 ◆ **(주중)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최근 1개월 컨센서스 기준 약 105.5조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미 기록적인 실적 기대가 반영된 만큼 100조원 돌파 자체보다 컨센서스 충족 여부와 이익의 질이 중요하다. HBM 출하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이 원화 강세 및 세트사업 비용 부담을 얼마나 상쇄했는지가 4분기와 2027년 이익 추정치의 방향을 좌우할 전망이다.

그림 4. 미국 10·30년물 국채 간접투자자 낙찰 비중 추이



자료: 미 재무부,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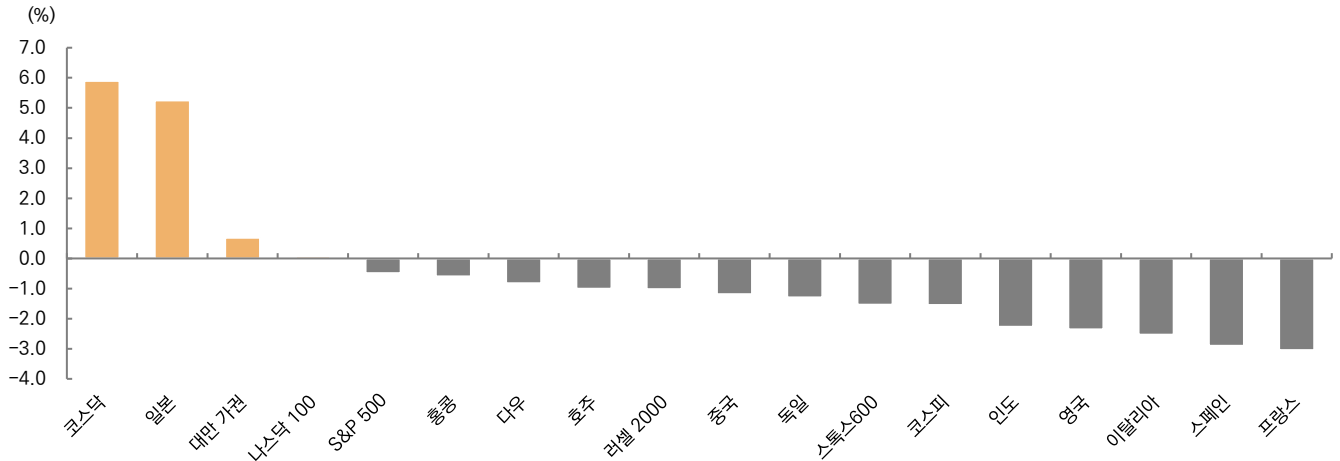
그림 5. 삼성전자 3Q26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주: 음영 구간은 추정치 최고, 최저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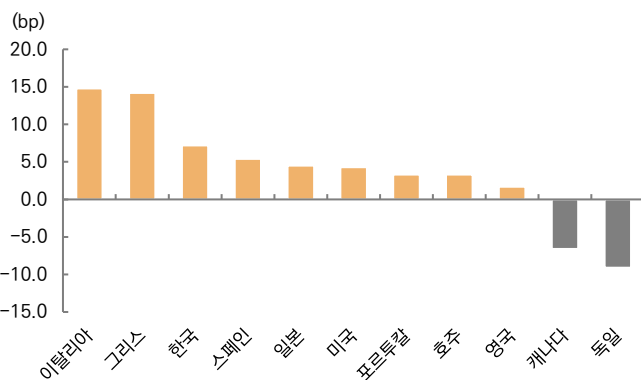
주간 글로벌 마켓 스냅샷(9.25~10.1)

그림 6. 주요국 지수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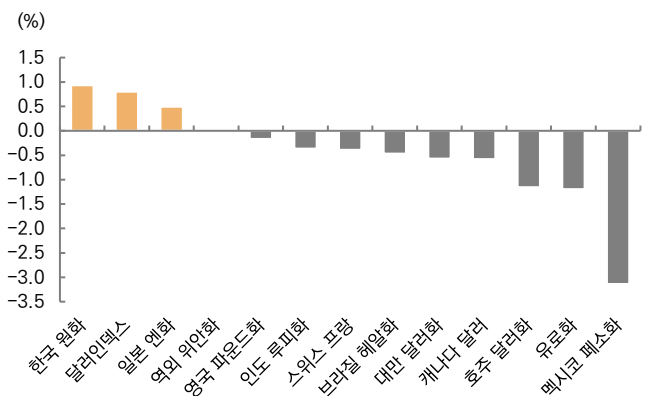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주요국 10년 국채 등락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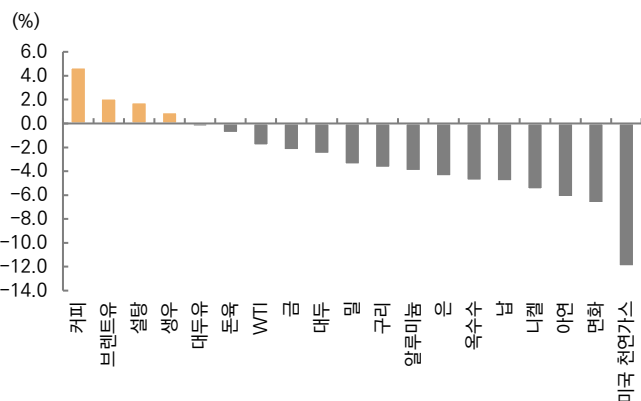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주요국 통화 가치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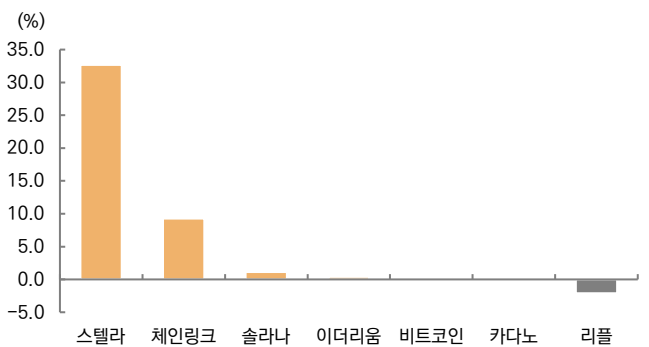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블룸버그 상품지수 품목별 등락률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나스닥 CME 암호화폐 지수 항목별 등락률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경제지표&일정

그림 11. 주간 경제지표 & 일정		
	경제 지표	일정
5일 (월)	- 일본, 9월 소비자신뢰지수 - 미국, 9월 ISM 서비스업지수	휴장: 한국(개천절 대체공휴일), 중국(~7일)
6일 (화)	- 유로존, 8월 소매판매 - 미국, 8월 무역수지	- 발언: 우에다 BOJ 총재 연설 - 실적: 컨스텔레이션 브랜즈 - 공개: EIA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 - 채권: 미국 3년 만기 국채 입찰
7일 (수)	- 한국, 2분기 자금순환 - 미국, 8월 소비자신용지수 9월 뉴욕 연준 소비자지대조사	- 실적: 레비 스트라우스 - 공개: 미국 FOMC 의사록 - 채권: 미국 10년 만기 국채 입찰
8일 (목)	- 한국, 8월 국제수지 - 미국, 8월 도매재고	- 실적: 펩시코, 삼성전자(잠정), TSMC(9월 매출) - 행사: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한국 옵션 만기일 - 채권: 미국 30년 만기 국채 입찰
9일 (금)	미국, 10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잠정)	- 실적: 델타항공 - 공개: 월간 농수산물수급전망보고서(WASDE) - 휴장: 한국(한글날), 대만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주: 현지시각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